로컬플러스

군산보건소, 9월까지 집중 방역 실시

최근 급변하는 기후의 영향으로 위생해충이 급증하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보건소 는 오는 9월까지 '범시민 일제 방역소독의 날'을 지정해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읍·면·농촌동 등 18개 방역단을 운영하고 산업단지, 도심공원, 하수구, 쓰레기 집하장, 공중화장실 등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경찰서 업무 유공 3명 표창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23일 업무실적 우수 경찰관과 경찰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주인공은 봄철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관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관리에 공적이 있는 민원실 김현철 경위와 옥산파출소 이혁찬 경사, 그리고 각종 집회현장에서 우수활동을 펼친 정보보안과 김응식 경위이다.

이와 함께 경찰서 주차공간 확대 등 환경개선과 화단 식수 월명공원 이식 등에 협조하며 경찰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한 군산시청 하수과 강의식(행정6급)씨, 김성우(행정6급)씨, 산림녹지과 백용현(행정6급)씨 등 각각 경찰서장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안산장학재단 익산병원 관내 고등학생 등 64명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안산장학재단(이사장 이준)은 최근 익산병원 연수관에서 관내 지역 고등학생(16명)과 대학생(5명) 및 익산병원 임직원 자녀(43명), 총 64명에게 장학금 1,88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수상자들은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된 학생들로 평소 성적이 우수하고 익산병원의 설립이념인 "사랑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학생들이 추천됐다.

이준 이사장은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들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도전정신과 끈기로 자신의 잠재력과 꿈을 마음껏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어린이 군산학' 현장교육 각광

국비 3,000만원 지원받아 백제세계문화유산탐방

'작은 학교에서 세계문화유산을 만나다'는 주제로 그동안 어린이 군산학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섬 지역학교를 중심으로 방문을 통한 이론교육과 역사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시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군산학'이 각광을 받고 있다.

어린이 군산학은 지역에 대한 역사와 인물을 이해하고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길러 미래 군산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사업이다.

2014년 시범실시 후 지난해까지 관내 30개 초등학교에서 진포대첩과 조운선 등 주제가 있는 군산 이야기와 군산지역 출신의 대표적인 소설가 故채만식 작가의 인물이야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도 관내 29개 초등학교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지난 4월 미성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군산의 개항과 수탈, 이영춘 박사를 조명하는 등 군산지역의 역사 강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군산시와 함께 '어린이 군산학'을 진행 중인 (사)아리울 역사문화는 그 실력을 인정받아 문화재청에서 주최한 '2016년 문화유산 방문교육사업'에 선정돼 국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백제세계문화유산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작은 학교에서 세계문화유산을 만나다'는 주제로 그동안 어린이 군산학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섬 지역학교를 중심으로 방문을 통한 이론교육과 역사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유적지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산을 알아야 한다'는 슬로건을 전제로 관내 30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백제 세계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아리울역사문화 문정현 대표는 "군산은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별 전략적 요충지이자 문화교역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던 중요한 곳이다"며 "내 고향 군산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흥미를 가지고 교육뿐만 아니라 체험중심의 활동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군산을 알릴까 고민하다가 '찾아가는 어린이 군산학' 강좌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원광고, 사제동행 라이딩

익산 원광고등학교는 최근 교과별 특성이 연계된 통섭 교육의 일환으로 섬진강 일대를 자전거로 돌아보는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이번 라이딩 행사는 익산철인클럽 회원들로 구성된 학부모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임실군 덕치면에서 출발하여 섬진강변을 따라 시인 김용택 생가, 천담마을, 구담마을, 요강바위, 구암정을 거치며 진행되었다.

각 장소마다 작은 이벤트로 흥미를 더욱 높였으며 교사들이 준비한 교과별 활동지를 작성하며 체험학습으로 통섭형 교과 교육을 현장에서 적용해 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의 사제동행 프로그램들이 문학을 중심으로 작품 속에 담긴 현장을 답사하거나 작가의 생가를 방문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면 원광고는 소질·적성·능력 등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통섭형 체험을 준비하였다. 이를 위해 문학-지구과학-역사 교사들이 섬진강을 담은 문학작품, 주변의 지질학적 특성, 역사문화 등을 학습지로 만들어 학생들이 사전에 읽고 라이딩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원광고 송태규 교장은 "사제동행 라이딩과 같은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을 통해 학교 밖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유대감을 높이고 차후 학부모도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로서의 믿음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해경, 해양치안협 정기회의 개최

현장대응 역량강화 · 조직문화 개선 · 주요 추진업무 등 발전방향 논의

해양안전 정책과 비전제시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양치안 정책을 실현하고자 2016년도 '해양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총 21명으로 구성된 해양치안협의회는 지난 2010년 각 업무별 자문위원들을 통합해 현재 협의회로 발족했다.

이후 매년 4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해양경찰 발전을 위한 격려와 지원은 물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주저하지 않는 자문과 협의체 역할로서의 소임을 묵묵히 해오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군산해경은 ▲현장대응 역량강화 ▲조직문화 개선 ▲주요 추진업무 ▲현안업무 순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협의회에서는 '해양경찰 발전을 위한 협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신규위원의 위촉식과 해촉위원 감사장 전달 등의 식전 행사도 진행돼 본격적인 협의회 활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 중앙지구대 친절3S 생활화 추진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한 '친절3S 생활화 및 1110운동'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지구대는 '경찰은 어렵고 가까이 다가오기 힘들다'고 느끼는 주민들 곁에 경찰이 먼저 다가가고자 최근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이 및 全 직원이 매일아침 출근시간대 07:40~08:10까지 30분간 관내 있는 아파트 출입구 진출, 출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전단지를 배부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을 당부하고, 웃으면서 인사건내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경찰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앙지구대는 주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간다는 의지로, 1110운동을 추진, 보이스피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금융기관 및 중앙시장 등 상가를 방문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특히, 교통사망사고율이 가장 높은 노인 보행자 대상으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매일 경로당을 방문, 안전보행법 등을 교육하고 LED 야광밴드 등 교통안전용품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립도서관 6월 매주 수요일 시민로스쿨 진행

군산시립도서관은 법무부가 주최하고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주관하는 '2016 시민로스쿨'을 진행한다.

시민로스쿨은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로스쿨은 개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기초법률 지식을 전달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에서 법률적 대처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과정으로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시민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시민로스쿨은 오는 6월 1일 교통사고 아니아니 아니되오!를 시작으로 8일 빚도 상속이 된다(상속법), 15일 똑똑한 소비자 되는 법, 22일 민사상 채권채무 등을 주제로 4주간 강연이 이어진다.

시민로스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uns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은 전화(063-454-5634)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호국보훈의 달 행사 논의 통합방위 협 개최

익산시가 23일 오후2시경 시청상황실에서 2016년 독수리훈련(FE)결과 보고와 호국보훈의 달 행사 협조 관련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통합방위협의회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10명이 참석해 각 기관별 통합방위 사태 안건 심의와 기관별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3월 독수리훈련(FE)에 대한 결과보고를 통해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재 검점하고, 현충일 기념식 등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위한 기관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익산=장양원기자